



미 연준, 2013년까지 초저금리 유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8월 9일 미 연준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범위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0~0.25%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힘.
 - 연준은 FOMC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범위를 2013년 중반까지 0~0.25%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힘.
 - 연준은 지금까지 초저금리 유지에 대해 ‘상당기간’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, 이번에는 최소 2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면서 초저금리 유지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.
 - 그러나 연준은 3차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으며,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경우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.

- 8월 5일 미국 신용평가사 S&P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+로 하향 조정하였으며, 신용등급 하락과 경기둔화 우려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연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.
 - S&P는 미 의회가 부채상한 증액에는 합의했지만 증세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며, 이는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이유를 밝힘.
 - 8월 8일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경기둔화 우려로 각각 5.55%, 6.90% 급락하였으며, 이로 인해 8월 9일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논의될 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됨.
 - 그러나 연준의 초저금리 유지 발표가 오히려 향후 2년간 미국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연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주식시장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함.

(Wall Street Journal 등, 8/10)